

토종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기업 나무기술

나무기술은 가상화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 AI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디지털혁신과 효과적인 운영을 리딩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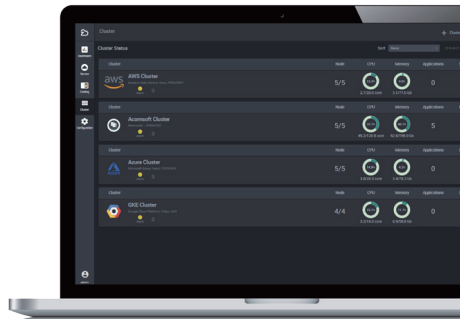
나무기술은 고객의 디지털 혁신에 이바지하기 위해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 1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과 연결시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나무기술은 각테일을 앞세워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2011년 1월 일본 법인과 2012년 1월 중국 법인에 이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세 번째 해외 법인이다.

토종 클라우드 플랫폼 '각테일 클라우드'로 미래 신시장 선점

'각테일'은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솔루션이다. IT(정보통신) 기업은 각테일을 활용해 프로그램 개발용 앱의 배포, 모니터링, 비용 관리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각테일의 특징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는 멀티하이브리드형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개발 앱과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앱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나무기술은 고객에게 Build Your Own Cloud(자신의 클라우드 개발)를 표방하며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통합 환경을 제공한다.



회사연혁	
2018. 12	나무기술 미국법인 설립
2018. 12	코스닥시장 상장
2018. 11	2018 대한민국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7. 07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파트너 선정
2017. 05	대한민국 코넥스 대상 수상
2016. 07	아콘소프트 설립
2012. 01	나무기술 중국법인 설립
2011. 01	나무기술 일본법인 설립
2001. 11	회사 설립

CEO INTERVIEW

정철 대표이사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

나무기술은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올해로 18년여 째 가상화 및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사 주력제품인 멀티하이브리드 컨테이너 플랫폼인 각테일 클라우드 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2018 대한민국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회사소개	
설립일	2001년 11월 11일
대표이사	정철
업종	클라우드, 가상화, 인프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종업원수	175명(계열사포함)
대표전화	031-8017-3900
매출액	600억 원(2017년말 연결기준)
순이익	8.7억 원(2017년말 연결기준)
홈페이지	www.namutech.co.kr

자료: 나무기술